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4

# 세례 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2:40~3:22, 마태복음 3:1~17,  
마가복음 1:1~11, 요한복음 1:15~34)

나사렛 마을에 돌아온 요셉 가족!  
요셉은 다시 목수 일을 시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유대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어요.

소년이 된 예수님은 기도 점점 자라고 몸도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열두 살이 되던 해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죠.

**“예수야, 유월절이 뭐라고 했지?”**

**“예, 어머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유월절은 그걸 기념하는 절기고요.”**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기념하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곳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축제 기간을 보내고  
마침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수많은 인파가 뒤섞여서  
고향으로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났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요셉! 요셉! 우리 예수가 안 보여요!  
뒤쳐졌나 봐요!”

“뭐? 아니 그럴 리가.  
사람들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서 오던 길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사흘을 고박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을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어떡하면 좋을까요...”

“마리아, 진정해요. 아니면 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부부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확인해 보지 않은 곳은 그곳뿐이었으니깐요!!  
성전 문이 열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걱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예수야! 대체 왜 여기 있어!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런데 며칠 만에 부모님을 본 예수님이  
아주 태연하게아리송한 대답을 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나요?”**

**“아버지 집...?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나 하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허허허. 이 소년의 부모인가 보군요.  
아주 영특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이 하나님 말씀을  
어찌나 꿰뚫고 있던지, 평생 공부한 우리들도  
같이 토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헤헤헤.”**

**그 일이 있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라났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기가 더욱 자라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요단강 근처 넓은 들판을 한 청년이 걷고 있었죠.

**“회개하시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모두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배가 고플 때면 ‘메뚜기 나무’라고 불리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거나 들판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죠.  
이 특이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태어난 사촌 형제이자  
사가랴 부부의 아들인 요한 말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누추한 차림새로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또 요한은 요단강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저보다 더 강하신 분이서 제 뒤에 오실 겁니다.  
저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할 정도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끗하게 씻고 곧 찾아오실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의미였죠.  
그러던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찾아오셨어요.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아니 예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네에?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저에게 세례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그게 모두에게 의로운 일이 될 것이니.”**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몸을 담그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시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비둘기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큰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직 예수님과 요한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죠.**

**“방금 비둘기 한 마리가 왔다 가지 않았나?”**

**“워낙 눈이 부서 제대로는 못 봤는데  
분명 비둘기였네!”**

**“허 참, 별 신기한 일이 다 있구만!”**

강가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홀연히 어디론가 떠나고 계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